

<맨발의 겐>이 보여준 인간에

공연문화산업연구소 & 극단 갖가지 <맨발의 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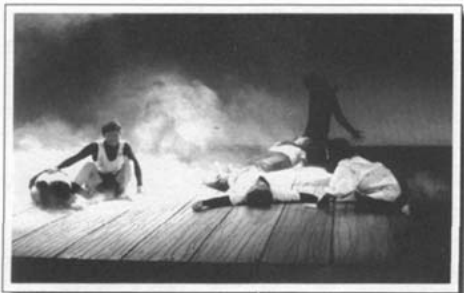
글 김문환(연극평론가, 서울대 교수)

일본의 카야마연구소가 제작한 <맨발의 겐>(나카자와 케이지 작, 키지마 코오 연출)의 내한공연은 기록해 둘 만하다. 우리말로도 이미 전10권으로 번역 출판되었다는 만화를 바탕으로 한 이 공연의 소개는 1945년 8월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의 중심지 6백 미터 상공에서 작렬한 원폭으로 인해 파괴된 한 소년의 가족사이다. 원작자 자신의 경험을 그려낸 것이기에 사투 감동적이다. 그러나 이 공연을 감동적이라고 하는 배경에는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종전의 일본, 특히 일본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아주 다르다는 사실이 작용한다.

필자가 히로시마를 처음 방문했던 때는 이 곳에서 1년 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기로 되어 있어 그 준비로 부산하던 1993년이었다. 원폭이 투하되었던 현장과 그 곳에 세워진 평화기념시설들을 둘러보고 난 심정은 한마디로 어이없음이었다. 특히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들과 그 설명들은 온통 일본은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그와 같은 어이없음은 평화공원 바깥에 세워진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탑을 보면서 슬그머니 분노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가 제일 한국인 조선인간의 의견불일치 때문이라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2002년, 그곳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에 '한류'와 한국대중문화와 동아시아 3국 관계에 관한 강연을 맡아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그 위령탑이 경내로 들어섰고 오부치수상이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여 현화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만큼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전 시내용은 그대로였다. 심지어 일본 농어인 조선 이주러니 '진술'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연된 <맨발의 겐>이기에 평가 자신 초청장을 받고도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일본대학 주최로 서양문화가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초청되어 판소리가 창극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소개한 문화분과 발제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한 오다 쇼오의 공연을 보러간 자리에서 일본의 양식 있는 연극평론가 오자사 요시요 교수를 만나 그가 바로 이 공연 때문에 한국에 온다가에 그를 믿고 함께



관극기로 한 것이다. 과연 이 공연에서는 일본을 피해자로 강조하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강제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과 연관된 부분들도 큰 무리 없이 삽입되어 있다.

12명의 연기자들이 영사막과 가변적인 무대장치와 함께 활력 있는 무대를 꾸며내었다. 소년 역을 한 다나가 미유키와 해설자 역의 마에다 마사아키, 그리고 어머니 역의 타카기 마사코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신인처럼 보이는데, 그와 같은 연기방식이 풍기는 풋풋함은 변다하지 않은 음악들과 함께 오히려 싱그러워 보였다. 무용장면들이 때로 생경해 보이기도 했는데, 내용 자체가 생생한 현실을 다루고 있기에 울 수 있는 부조화가 아닐까? 그러나 여동생 역을 한 시부라미 마이가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한국 춤은 10년 정도 배웠다는 숨씨가 유감 없이 발휘되어 그의 예명 마이(舞)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동시통역을 통해 극 내용이 잘 전달되었던 것도 뜨거운 관객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다만 한국과는 다른 일본문물을 이해시키기에는 다소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 보였다. 예컨대 소년이 아버지를 화가라고 말하는데, 그는 실상 계나에 무늬를 그려 넣는 장인이었다. 그의 작업 장면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으로만 보였던 맛도 있었지만, 선뜻 이해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장유진, 김종성이라는 한국의 정상급 성우들의 목소리연기가 극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문화일보홍보다는 예컨대 문예극장 같은 곳에서 공연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의미 있는 공연이었기에 단순한 극평과는 다른 문제로 그 의의를 적어본다.